

노마디즘적 세계화 시대와 외국어 공용정책

양 영 수*

목 차

1. 들뢰즈-가타리의 노마디즘적 탈영토주의
2. 코드로서의 언어, 욕망으로서의 세계화
3. 행동은 지역인으로서, 사고는 세계인으로서

근자에 우리 사회 일각의 뜨거운 화제였던 영어공용화 논쟁에서 공용화 반대론자들의 한가지 주장은, 영어공용화 찬성론은 돈벌이를 위해서는 정신문화의 오염을 가져와도 좋다는 천박한 경제논리라는 것이었다. 물론,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려는 주요 목적이 경제발전에 있고, 제주도의 세계화 정책의 한 부분으로 추진되는 영어공용화의 구상도 그 직접적인 계기는 경제논리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외국어의 도입과 활용을 통한 문화접변현상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현상의 차원보다 훨씬 광범하고 심오한 삶의 질의 선택문제에 속한다.

외국어 공용정책은 반드시 문화창달의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역사상 국가간의 충돌과 전쟁이 언어정책의 혼란과 문화전통의 유실로 이어진 예는 허다하며, 언어의 동질성 상실이 민족문화의 정통성을 파괴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손상하며 민족역량의 결집을 꺾을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도 명심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있었던 다분히 정서적인 논쟁에서는, 언어문화의 정통성에 대한 맹신주의의 기미가 엿보였으며, 문화발전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부족을 드러내는 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역사발전과 문화창조의 길은, 자연법칙의 인과관계에 따르는 결정론적인 코스를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창조 주체자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는 믿음에 입각하여 외국어 공용화가 문화창달의 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짚어보는 것이 이 논문의 연구목적이다. 앞으로 더욱 거세게, 거의 불가항력적으로 밀어닥칠 세계화 물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공용정책을 문화발전의 저해요인이 아니라 그 촉진책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

* 제주대 사범대

다는 것이 필자의 믿음이다. 국경선 개념의 획기적 혁신을 수반한 전지구적 공동체 시대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길은, 재래의 강고한 민족감정이나 국가중심주의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전지구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는 이른바 노마디즘적 사고방식에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러한 탈국가적 노마디즘에 대한 들뢰즈-가타리의 견해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이를 논거로 하여 외국어 공용정책에 대한 진취적인 견해를 개진해 보고자 한다.

1. 들뢰즈-가타리의 노마디즘적 탈영토주의

급변하는 세계정세가 매우 혼미스럽고, 불확실한 미래상에 대한 엇갈리는 판단과 예언들이 우리의 방향감각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들뢰즈-가타리의 노마디즘적 세계 해석을 서두에 살펴보는 것은, 이들의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국가론이 다가올 지구공동체 시대에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희망적인 미래상의 성격에 대해 중요한 지표를 제공해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홍수처럼 밀려오는 거대한 물량의 지식과 정보 물결도 그것을 조망할 수 있는 적당한 고지를 확보한 다음에는 시대변화의 격랑 속에서도 대책없이 휩쓸리지 않고 변화의 방향을 잘 이용하여 보다 견실하고 윤택한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들뢰즈-가타리는 인간의 삶과 세계의 구조를 이원론적인 것으로 본다. 하나의 원리는 무조건적이고 자생적인 욕망과 이로 인한 생성이고, 다른 하나의 원리는 생성의 욕망에 일정한 형태를 부과하는 기계[코드]이다. 흘러가는 강물이 강 연안의 구조에 의해 구체적인 모습을 띠듯이 욕망-생성은 일정한 코드와 만나 형상화 조직화된다. <욕망하는 기계>는 이러한 이원론을 압축하는 이들의 독특한 표현이다.

역사발전의 단계를 설명하는 들뢰즈-가타리의 논리도 이같은 이원론에 따른다. 이들에 의하면, 인간사회는 원시시대에서부터 출발하여 국가주의 시대를 거쳐서 자본주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는데, 시대변화를 설명하는 핵심어는 욕망의 생성을 조직화하는 방식, 즉 코드화 양식이다. 원시사회에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코드를 통해 욕망과 생성의 흐름을 조직하는 코드화(encoding)가 이루어진다. 제왕적 국가주의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국왕의 통치 행위라는 하나의 코드 아래에 다른 모든 코드들을 종속시킨다는 의미에서 초코드화(overcoding)가 이루어진다. 이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제한으로 생성하는 다양한 욕망이 전통코드에 의한 억압에서 벗어나는 탈코드화(decoding)가 이루어진다. 신분사회의 통념이었던 지배-복종 관계가 무너지고, 산업제품 뿐만 아니라 신체, 행위, 담론, 이미지 등 인간활동의 결과 생기는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중심사회에서 만연되던 편집증적 응어리짐이 폭발적인 욕망의 분열증적 흐름으로 바뀐다.

전통적 삶의 구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열증적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 충동을

공정하는 것이 들뢰즈-가타리의 자유주의적 노마디즘이지만, 이러한 충동에 맹목적으로 몸을 맡기고 그 흐름을 강화하자는 것이 이들의 참뜻은 아니다. 이들은 탈영토적 흐름을 가로지르는 끊임없는 창조행위를 제안한다. 욕망의 탈영토화를 다시 교묘하게 코드화하는 자본주의적 재영토화[타성]에 저항하는 또 다른 탈영토화 운동을 주창하는 것이다.¹⁾

욕망 생성의 영역을 무한히 확대하는 탈영토화의 개념은 들뢰즈와 가타리의 공저 『천의 고원』(*Mille Plateaux*, 1980)에서 고안된 리좀 개념을 통하여 알아봄이 좋다. 이들의 비유적 표현에 의하면, 국가주의 사회는 뿌리나무 시대의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는 줄기나무 시대의 것이다. 한 개의 뿌리가 한 개의 나무를 키우는 수목(樹木)모델(arborescent model)은 위계적이고 구심적인 권력 질서에 의한 편집중적 속령화(屬領化: territorialization) 과정을 설명해 주며,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지하의 뿌리 하나가 지상에서 수많은 나무들을 키우는 근경(根莖)모델(rhizome model)은 자기확대적이고 유동적인 욕망에 의한 탈영토화 과정을 설명해 준다.²⁾ 전자가 하나의 점에 주목하는 환원적인 시각이라면 후자는 연장적인 선의 확산에 주목하는 비환원적인 시각이다. 무한한 '탈주의 선'(flight line)이라는 이들의 용어는, 흠이 패인 평면 위를 고정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매끄러운 평면을 무제한으로 질주하는 욕망배출의 메카니즘을 잘 설명해 준다.

20세기 말엽 여러 선진국들의 시민사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국가권력과 무관하거나 이에 저항적인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시민운동의 활성화이다. 이들 비정부기구는 국가권력과의 제휴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광범하게 국제기구화하거나 좁은 범위의 지역기구로 남아있는 가운데, 일반 대중의 다양한 삶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무한하게 뻗쳐가는 줄기나무식 탈영토화 모델을 구체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프린스턴대학 미래학연구소의 마이클 월저(Michael Walzer) 교수는 세계화시대의 국가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 형성을 환영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나는 앞으로 몇십년 동안 정치이론가들의 관심은 민족(국가) 차원 이상이거나 이하 즉, 초민족적인 구성체와 시민사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³⁾

오늘날 국가는 지루하거나 비효율적이거나 부패해 있다. 시민사회가 신나는 장소인 반면, 국가권력을 추구하는 민족주의자들은 대부분 흥미없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 유럽의 대중이 가리발디나 코수스와 같은 19세기 민족주의자들을 맞았던 때의 열광을 생각해 보라. 오늘날

1) 이정우, 「질 들뢰즈, 탈코드화 시대의 사유」, 『세계의 문학』(1996년 봄호)을 참조.

2) 신현준, 「들뢰즈/가타리: 존재의 균열과 생성의 탈주」, 이진경 외 『근대의 경계를 넘어서 철학의 탈주』(새길, 1995)의 258-268쪽 참조.

3) 마이클 월저(Michael Walzer), “국가와 세계 사이”, *The Future Surveyed by The Economist*의 번역본 (도서출판) 넥서스 편 『21세기 미래예측』의 124쪽.

엔 국가주권을 목표로 하는 어느 누구도 그들처럼 열광적인 환호를 받지 못할 것이다. 레흐 바웬사와 바클라프 하벨은 반체제인사라고 불리울 때에만 영웅적인 인물이었다. 서구에서는 환경주의자, 여성해방론자, 종교적 지도자, 시민권 활동가 등등이 어느 정치가들보다도 칭송을 받는다. 그들은 지금까지 소외돼 온 사람들과 억압받고 무시돼 온 주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정치이론가들에게는 흥미로운 대상이다.⁴⁾

민족주의의 시대적인 효용가치가 상실되었음을 인지하는 일은 한국의 지성계 일각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오랫동안 강대민족들의 침탈을 겪으면서 강력한 국민적 역량의 결집이 필요했던 관계로 우리 조상들에게는 유달리 강한 민족의식이 하나의 전통처럼 되어있었지만, 근자에 와서는 어쩔 수 없는 세계화 물결의 대세를 눈앞에 보면서 민족주의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이나 하는 문제에 대한 성찰과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소설가 복거일(卜鉅一)이 들려주는 민족주의 비판의 일성을 들어보기로 한다.

현재 민족국가는 기본적 정치단위다. 그래서 민족국가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정치체제로 여겨질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활동들에서도 불가결한 틀로 여겨진다. 그런 사정은 민족주의에 튼실한 바탕을 제공한다. 민족국가와 민족주의가 그렇게 큰 활력과 영향력을 지녔으므로, 많은 사람들은 민족주의가 오랫동안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생각한다. - - - 그러나 민족주의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중심적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류사회는 쉬지않고 진화한다. 여러 문명들이 하나의 지구문명으로 통합되어 가면서, 민족국가들의 국경은 끊임없이 낮아지고 성기어진다. 그리고 모든 부면들에서, 특히 경제와 환경문제에서, 초국가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응이 점점 절실해지므로, 사람들의 충성심을 민족국가가 독차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충성심의 일부를 요구하는 초국가적 정치체제의 목소리는 커질 것이다.⁵⁾

민족주의가 세계시민주의로 바뀌는 역사적 진화단계에 와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바로 들뢰즈-가타리가 제시하는 노마디즘적 세계의 미래상과 일치된다. 이같은 노마디즘적 세계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매끄러운 공간 이미지이다. 국가주의적인 정착의 공간은 벽과 울타리와 울타리 사이의 길들에 의해 흠이 패인 반면, 유목주의적인 공간은 질편하게 매끄러운 것이라서 그 위를 달리는 삶의 족적은 잇따르는 사건들에 의해 무수히 지워지고 치환된다. 유목민들은 스스로의 삶을 매끄러운 공간에 포진시킨다. 그들은 이 공간을 차지하고 거주하고 유지하지만 때가 되면 훌쩍 떠난다. 이것이 그들의 탈영토화 원리이다.⁶⁾

4) 『21세기 미래예측』의 128-9쪽.

5) 복거일,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문학과지성사, 1998) 74-5쪽.

정착민 세계의 틀은 자기 소유지에 울타리를 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닫힌 공간임에 반하여, 유목민적 세계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찾아서 기존의 틀에서부터 과감히 탈주할 줄 아는 열린 공간이다. 끊임없는 탈주의 정신은 자유와 해방의 공간을 마련하는 바탕이 되며, 하나의 중심적인 삶의 틀을 거부한다. 하나의 중앙집중적인 조직보다는 복수의 중심을 갖는 조직, 하나의 원리에 의해 통일되고 체계화되기보다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묶여있는 가운데 일관성을 이루면서 다른 요소들에게로 무한하게 접속되기를 바라는 사회, 고정된 의미의 '나'와 '우리'의 세계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고 편안하고 전통적인 동질성 세계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외부와의 만남과 이에서 생성되는 차이의 생성을 너그럽게 긍정하면서 상생관계를 추구하는 이른바 '코문주의의 외부성'.⁷⁾ 이런 것들이 들뢰즈-가타리가 제시하는 노마디즘적 세계의 특징을 이룬다.

이들이 그리는 노마디즘적 세계의 역사적 모델은 징기스칸의 몽고제국이다. 유목민적 삶의 구현자인 징기스칸의 통치방식은 강력한 국가주의자 진시황의 그것과 대조를 이룬다. 중원의 무력통일에 성공한 진시황은 중앙집권적인 절대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 문자, 화폐, 도량형 등을 통일하였고 국토의 안정적 보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만리장성 축조의 대업을 강행하였으며, 위대한 중국통일의 영광을 만세에 누리기 위하여 자기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 누울 무덤 속에 거대한 도시모형과 군진(軍陳) 조형물 시공의 대역사(大役事)를 명령하였다. 문맹이었던 징기스칸은 아들들에게 투르크계 언어인 위그르어를 배워 국가경영술을 익히도록 하였고, 이민족인 타타통아(塔塔統阿)로 하여금 제국내에 거주하는 상이한 부족들간에 서로 침해하지 않는 법령을 만들도록 하였다. 중요 작전에 투입될 특수 부대인 별동대를 조직하거나 심지어는 중앙정부의 내각을 조직할 때, 외국인이나 노예, 포로, 투항자라 할지라도 유능하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등용하였다. 징기스칸은 민족이나 혈통의식에 구애되지 않는 일종의 코스폴리탄적인 국제주의 성격의 사회를 추구하였던 것인데, 그가 건설한 이 유목민적 탈영토적인 제국이 진시황이 건설한 속령통합적 제국보다 훨씬 더 광대한 정복을 이루었고 훨씬 더 오랫동안 역사를 지배하였다. 그는 정복 전쟁중에는 용맹하고 잔인하였지만, 일단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는 관대한 유화주의 정책을 씀으로써 이민족간의 평화로운 교류와 협력을 보장해 주었다. 자기 무덤이 어디 있는지조차 세상에 알리지 않도록 만듦으로써 자기의 삶의 궤적이 후세인들에 의해 지워짐을 흔쾌히 받아들였던 징기스칸의 표표(飄飄)하고 청아한 정신자세는 우리가 지향할 세계시민상의 단면을 시사해 주는 것 같다.⁸⁾

6) 이진경, 『노마디즘: 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 2』(휴머니스트, 2002)의 382쪽 참조.

7) 이진경의 앞 책, 725쪽 참조.

8) 이진경의 앞 책 403-4쪽과 McKay Hill Buckler, *A History of World Societies*(Houghton Mifflin Company, 1992)의 319-321쪽 참조.

들뢰즈-가타리가 제시하는 유목민적 발상법은 문화적인 국경선 개념을 보다 유연하게 잡아가는 길이 보다 윤택한 삶의 길임을 가르쳐준다. 미래의 유목민적 자유주의자는 단일한 문화공동체에 종속되기보다는 전지구적인 지식정보망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음으로써 주변살피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이민족이나 낯선 인종이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기피하지 않으며 외국인 근로자나 정치적 망명자까지도 환대하게 되리라고 한다. 탈중심적 사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강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시아와 유럽대륙의 동서를 넘나드는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건설하고 이질적인 인종과 문화와 언어에 구애받지 않는 열린 사회, 다민족 공동체를 구현했던 징기스칸의 웅대한 포용력에서 우리의 지혜를 얻자는 것이다. 광활한 대륙을 가로지르며 경계를 지우고 다종다양한 타문화를 끌어안고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을 확대해 나갔던 유연한 사고가 우리의 택할 길이라고 보는 것이다.

2. 코드로서의 언어, 욕망으로서의 세계화

들뢰즈-가타리의 이원론적 발상법에서 볼 때에 우리가 택한 세계화의 이념은 생성의 욕망에 속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적 도구는 삶의 코드에 속한다. 자생적이고 확산적인 우리의 욕망이 세계화 적용의 길을 택했다면, 언어는 이같은 욕망을 조직화 형상화하는 방식이다. 과거에 단일민족의 동질성을 찾고 국민적인 단합을 호소했을 '국가주의 시대'에는 국어의 순수성과 국어사용에 의한 민족정체성 확인이 우리의 민족감정과 국민의식을 조직하는 중요한 코드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 진행중인 '자본주의 시대'의 탈영토적 삶의 확산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언어의 순수성 지키기를 요구하는 근거를 민족 정체성의 유지에서 찾던 시대가 있었지만, 그러한 시대에서도 민족적 정체성은 그 자체로서 삶의 목적은 될 수 없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민족 정체성의 유지는 어디까지나 보다 인간답고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었고, 들뢰즈-가타리의 논리를 따른다면 우리의 생성 욕구를 조직화하는 하나의 코드에 불과한 것이었다. 국가주의가 세계역사의 대세였던 국제정치의 역학구조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개체적인 단위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서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이 멸망하면 이에 속했던 개인의 삶도 부지하기 어려웠으며 민족 정체성을 지키지 못함은 곧 우리의 역사적 삶을 포기함을 의미하였다. 현재라고 해서 개인의 삶에 대하여 국가의 존재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 유지나 언어(문화)의 순수성 지키기가 국력의 강화나 민족문화의 창달에 적극적으로 필요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다.

문화다양성 수용을 역사발전의 대세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시대에는 문화적인

정통성을 고집함은 곧 문화의 정체로 가는 길일 수 밖에 없다. 이질적인 문화요소들이 만나는 문화접변의 상황이 문화창조의 풍부한 토양으로 이용되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는 인류역사의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논점을 가장 중요한 문화요소인 언어에 한정하여 이야기할 때, 세계사를 지배해온 지도적 문화권의 이동 역사를 선진적인 외국어 활용의 역사로 바꾸어 설명할 수가 있다. 서양의 정신문화의 큰 연원이었던 고대 그리스 문명의 지도력이 로마문명권으로 넘어갈 때 그 결정적인 촉매역할을 한 것은 로마인들의 그리스어 활용이었다. 고대그리스 선진문화의 자산과 그리스 학자들의 도움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면 유럽을 지배하는 로마제국의 역사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이같은 문화창조 과정에서는 그리스어라는 매체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양문명의 지배자가 지중해 문명권에서부터 서부 유럽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이들 서구문명권이 이태리반도에 존속하던 고대 그리스-로마 문명을 문화창조의 자산으로 활용하였다는 사실에 있었으며, 그 문화전파의 매체는 라틴어였다. 오늘날에 와서 영어가 세계어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은 물론 세계의 지배자로서의 미국인들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이지만, 영어가 세계어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풍부한 어휘와 유연한 문법구조를 갖게 된 것은 (윌리엄 정복에서 발단된) 프랑스어의 대대적인 도입이 있음으로써 가능해졌다.

외국어의 적절한 활용이 문화발전의 강력한 계기가 되는 예로서 한국인의 한자활용 역사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한자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 민족은 아주 독특하고 정통성이 분명한 한국 고유의 문화를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경우의 독특한 고유문화가 진정으로 바람직한 것이었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한자 사용이 없었을 경우 한국어의 표현력이 얼마나 빈약하였을 것인지를 상상해 보자.) 물론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한자문화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와 문화종속주의라는 민족적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지만, 그것은 정치적 지배종속관계가 민족의 생존논리였던 옛 시대의 일 이었고, 오늘날 크게 달라진 세계의 정치질서에서는 인식의 차원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일제가 우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 한국어 말살정책을 썼던 역사적 사실도, 오늘날 달라진 세계정치질서의 맥락에서는 우리에게 역사적 교훈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오늘날의 외국어 공용정책은 외부의 힘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결단력에 의해 선택적으로 구상하고 모색하는 문화창조의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외국어의 적절한 공용은, 문화발전 인프라로서의 한국어 자체의 구조적 변화와 발전을 위한 호조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문제에서 한국어의 고유한 특징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요즘 한국어 문장이 수동태 형식으로 많이 쓰이고 심지어는 자동사 활용에서 까지 수동태 형식이 쓰이는 예를 보면서 어떤 이는 한국어 어법에 없는 외국어 방식을 모방하는 것이고 무식의 소치라고 비웃었지만, 이는 옹졸한 문화쇄국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한다. 영어와 일본어에서 발달된 수동태 형식이 한국어 사용의 습관에 도입되었다고 하지만.

이로써 한국어의 표현력이 풍부해지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이상하게 느낀다>와는 분명히 다른ニュ앙스를 지닌다. <오늘 뉴스에 의하면 - - -> <건강에 지나치게 조심할 수는 없다>와 같은 표현법도, 영어식 표현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⁹⁾ 원래는 우리말 어법에 없던 무생물주어(無生物主語) 표현이 요즘에는 꽤 많이 쓰이고 있음을 본다. 이것도 영어식 표현법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국어의 표현법이 풍부해지는 현상을, 민족언어의 오염으로 해석해야만 할까.

외국어 공용이 가져올 외국어 어휘의 한국어 유입현상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요즘 대학생들간에 <그룹 스터디>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데 이에 해당되는 적당한 한국어가 없다면 외래어를 써도 좋을 것이다. 스타일, 스마트, 패스트푸드, 패션모델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섹시하다> <로맨틱하다> <컬러풀하다> <컴플렉스>와 같은 표현으로 말하면 순수 우리말로 바꿔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감과 분위기가 다르다면 국어와의 혼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요즘 우리들 사이에 <컨셉>이라는 영어단어가 부쩍 많이 쓰이고 있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생각, (고정)관념, 목적, 의도 등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때 이 단어의 국어 도입은 우리의 언어생활을 풍부히 하는 데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언어를 비롯한 문화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국적과 근원을 너무 따지고 드는 것보다 그것의 사용가치를 고려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외국어 혼용을 통한 언어문화 발전의 면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른바 콩글리쉬(Konglish)라고 하는 한국식 영어의 문제이다. <올드미스> <백넘버> <백미러> <핸드폰> <프로티지> <샐러리맨> <와이셔츠> <호치키스> <핑크타이어> 등 적지않은 단어들이, 영어사전에는 등재되어있지 않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나와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고, <고상틱하다> <팀장> <롱다리> 등 영어와 한국어의 합성어까지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사이비 영어를 쓰는 것을 좋지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지만, 의미의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식으로 재구성된 신조어를 쓰는 것은 허용하여 마땅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이러한 콩글리쉬 단어들 가운데에는 미국 사람들까지 우리의 뛰어난 조어(造語) 발상능력에 감탄할 정도로 훌륭한 것들이 있거니와, 우리가 문화식민지의 국민이 아니라 자주독립적인 문화창조의 주체임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주체적 외국어 활용의 예라고 생각된다. 한자의 요소를 빌려서 합성된 한국어 단어들이 결

9) 소설가 복거일은 외국어 번역투의 문장어법이 한동안은 생경한 느낌이 들겠지만 이를 일상적 언어생활 속에 수용하고 점차로 세련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말의 표현력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한 잔의 술'은 'a glass of wine'의 번역처럼 어색한 느낌을 주었지만, 이것조차도 오랜 세월의 풍화작용을 거치면서 원래의 우리말식 표현인 '술 한 잔'이 지닐 수 없는 독특한 어감을 준다는 설명이다. 즉, 전자의 표현에서는 '한 잔'에 강세가 있고 후자에서는 '술'에 강세가 있다는 것이다. 복거일의 앞 책, 124-5쪽 참조.

과적으로 우리말 어휘를 크게 늘려주었음을 볼 때, 말의 국적을 까다롭게 따지기보다는 언어생활 속 의사소통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얼핏 보기에 순수 우리말이라고 생각되는 일상어들 중에는 뜻밖에도 한자의 요소를 빌려서 형성된 말들(예: 양말[洋襪], 양동이[洋동이], 별안간[瞥眼間], 갑자기[急作히])이 많이 있고, 한자의 요소를 제외시킨 한국어는 거의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이같은 사정은 영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본어에 침투해있는 영어 어휘는 우리말의 경우보다 훨씬 많지만, 이같은 현상을 일본인의 문화적 정통성이나 민족적 자존심의 차원에서 배척하기 보다는 일본어의 세계어적 기능확대 차원에서 시인하는 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이 아닌가 한다. 일본어 어휘에 영어가 많이 섞여있을 때 일본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는 얼마나 친근감을 줄 것인가 하는 생각이다. 요즘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에서 영문자 사용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는 세계시장에 내놓기 위해 전략상 불가피한 면도 있을 터이지만, 이처럼 외국어 겸용의 효과는 세계화시대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물론 무분별한 외국어 혼용이 가져올 폐단이 우려되지만, 문제는 우리의 건실한 문화창조 의지와 역량 여하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외국에 가봐야 애국심이 생기듯이 외국어를 써본 사람이라야 한국어의 특징과 우수성을 알게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한국어에서는 문장요소들간의 주종관계를 나타내는 관계대명사나 접속사가 없어서 논리적 조직적인 표현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도 논리성이 뛰어난 서구어를 배워본 사람이라야 안다. 자국어의 약점과 그것을 형성케 만든 역사적 상황을 안다는 것은 언어의 진화와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다. 요즘에 한국어 문장에 켄머나 괄호 등 기호를 통하여 문장구조의 비논리성을 보충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고, 언젠가는 논리성 높은 문장구조까지도 융통성있게 조립하는 노력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반면에 한국어는, 의성어나 의태어 계통의 어휘와 색깔이나 맛깔 관련 어휘가 풍부함에서 보듯이 그 뛰어난 감성표현 기능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외국어를 배워본 사람이라야 안다. 우리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높이고 우리의 결집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임에 틀림없다.

잡종강세라는 말이 있다. 다양한 생물의 종(種)들이 동일한 시공환경에서 공존할 경우, 여러 개의 종이 접촉 교배하여 생성된 잡종이 순종 생물체에 비하여 우월한 환경적응력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비교적 안정된 환경 속에서만 살아온 순종 생물체에 비하여, 대대로 다양한 환경 속에서 견디며 살아남은 여러 가지 종들의 유전자가 결합된 잡종이 다양한 환경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같은 생물학적 잡종강세의 원리를 인간의 문화현상에 적용시킬 때, 이질적인 요소를 아우르는 잡종문화가 강인한 생명력을 갖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화변동의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우리 시대에는 바람을 막는 칸막이가 오히려 문화의 체질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3. 행동은 지역인으로서, 사고는 세계인으로서

외국어 공용은 언어현상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질과 문화의 지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이 점에 있어서도,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고 집단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부정적 시각이 있는 줄 알지만, 건강한 문화창조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외국의 언어를 배우다 보면, 그 언어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문화요소들도 배우게 마련이다. 외국의 정신문화가 외국어 공용의 부산물로 얹혀 들어옴을 피할 수가 없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외국의 언어를 익히는 목적중의 하나가 문화적 지평의 확대라고 생각함은 어떨까. 세계사가 흘러가는 방향을 알아야 우리가 택할 방향이 어느쪽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 남의 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것을 잘 지킬 수 있다. 남의 것을 잘 모른 사람은 무엇이 우리것이고 우리것 중에 어떤 것을 지켜야 할지도 알 수가 없다.

유물론적인 문화코드가 유심론적인 욕망의 발산을 조직화한다고 하는 들뢰즈-가타리의 명제 속에는 <언어는 곧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명제나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라는 비트겐슈타인의 명제가 함축되어 있다. 언어가 의사소통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삶의 내용 자체를 규정짓는다는 이들의 언명은 외국어 공용의 건설적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언어라는 문화코드가 욕망의 생성과정을 조직화한다는 결정론적 현상의 다른 한편에서는 욕망의 성향여하가 언어라는 문화코드를 선택한다는 자유의지론이 싹틀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어공용화에 조심스럽게 찬성하는 것은 존재의 집으로서의 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화전통에는 지켜야 할 미풍양속도 많지만 고쳐야 할 악풍폐습도 많으며 외국의 (언어)문화와 접촉함으로써 전통의 반성과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 언어가 바뀌면 사고방식도 바뀐다는 명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외국어 혼용에 의해 우리의 정신문화가 파괴 훼손된다는 피해의식 쪽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언어지평의 확대에 의해 문화와 세계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삶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의 집>은 너무 웅색하고 가난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제주 사회라는 존재의 집이 얼마나 웅색한 곳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몇 해전에 있었던 세계섬문화축제가 아닌가 한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떨어지는 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인데도, 여럿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그들의 춤과 음악은 매우 다양하고 풍성한 것이었으며, 그들이 가져와서 전시했던 민속공예품들 역시 볼 만한 것이 많았다. 그들이 보여준 무대공연과 전시품들은 바로 그들의 생활문화에서 유래한 것일 터이다. 이 축제 기간중에 우리 고장 사람들이 이들 외딴 나라 사람들과의 언어소통이 가능했을 경우, 그들의 풍속과 미술품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이를 통한 문화지평의 확대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섬문화축제에 참가했던 많은 외국인 공연자와 그 수행원들이 우리보다 영어실력이 좋

있음을 상기하자.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문화적 제국주의의 횡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문화적인 국제교류의 통로를 개방하고 외국어 혼용을 방치하였을 때, 진정으로 좋은 것이 강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것이 좋은 것으로 행세하고 약자가 강자에게 흡수당하게 되어있는 현재의 세계화는 다원주의의 얼굴을 한 획일주의로 가게 마련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언어)문화적 개방정책은 곧 우리 문화의 체질을 개선 강화하는 길이라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강대국의 일방적인 필요에 의해 강요되는 외국의 언어문화 수용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용이고 우리의 문화창달 과정에 필요한 수단, 즉 하나의 문화코드로서 선택되는 해외문화나 외국어일 경우에는 강자의 지배논리를 극복하여 우리 문화의 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문화의 어떤 코드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자는 것이며, 각 민족의 문화특성들을 포괄적으로 보지 않고 요소적인 것으로 보는 한에서, 외래문화도입은 곧 민족문화 말살의 길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 없다. 우리의 학문과 기술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낙후되었으므로 외국어 실력을 길러서 선진지식을 시급히 도입해야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에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이 있으므로 외국어 습득을 통하여 선진 민주사회의 시범사례를 많이 배워야한다고 말할 때 여기에 무슨 문화제국주의 논쟁이나 획일주의 시비가 나올 수 있을까. 예컨대, 현재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외국어의 선진 과학기술을 도입 활용함에 있어서 외국어 원전보다는 한국어 번역서를 이용하는 것이 주된 방법이라는 현실이야말로 문화적 식민지 신세를 초래함을 지적할 수 있다. 우리가 이용하는 번역서의 대다수는 질적인 수준미달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나마 그 방대한 외국어 전문서적 더미에서 번역되어 나오는 분량 또한 절대부족이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종류의 서적이 번역되고 있는지도 매우 의문스러운 실정이다. 우리 대학사회 구성원들의 외국어 실력 수준이 낮다는 것은 그 만큼 해외문화의 도입과 교류 통로가 협소하고 편파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외국어 실력은 관광관련 직업 종사자나 통역사 번역사들에게만 있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문화발전의 저력은 일반대중의 참여없이 탄탄해질 수 없는 것이다. 이 시대의 국제정치 질서에 대하여 우리 한국인의 시각이 편협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미국중심의 정보망에 의해 크게 지배되는 한국의 학계와 언론이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는다. 우리의 외국어 실력이 좋아질 때, 우리 사회에 외국어로 된 다양한 전문서적과 신문 잡지를 보거나 외국어 방송을 듣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이와 함께 세계정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식견은 더욱 향상될 것이 아닌가. 지금 국제적 규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상거래의 거의 전부가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어 실력향상을 통한 사이버공간 활용능력의 증대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부하

게 해줄 것이겠는가. 세계화 정보의 전달매체 대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을 때, 영어 해독자가 많을수록 우리가 구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충실해질 것은 불문가지이다. 영어 실력이 요구되는 것은 정보의 구득에서만 아니다. 영어사용이 불편하지 않은 나라라야 영어를 쓰는 정보전달자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준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화 정보의 전달자로서는 다국적기업군의 역할이 막강한데 실제로 다국적기업체들이 지역본부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 그곳 주민들의 영어해독 능력은 결정적인 고려사항이다. 현재 유럽지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의 3분의 1정도가 조그만 나라 네델란드에 유럽지역 본부를 두고 있는데, 그런 사정의 배경에는 네델란드 국민이 유럽 여러나라 가운데서 영어사용에 가장 호의적이고 이 나라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영어교과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가장 높다는 사실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싫든 좋든, 문화다양성의 지구촌 시대가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외침에 너무 시달려 온 탓인지, 문화의 순수성 지키기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좀 지나친 것 같다. 우리가 혼혈아를 보는 시선은 별로 곱지 못하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귀화조건이 까다롭기로 알려진 나라이다. 우리중 누군가가 타민족의 여성과 결혼한다 할 때, 우리는 이를 흔쾌히 축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일상 속에 외국어가 들어온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케 하는 문화창달의 길이 될 수 없을까 하는 것이다.